

## 전쟁만 없었다면

시모히라 사쿠에 (下平 作江 당시 10 세)

아부라기 방공호 안에서 피폭. 어머니, 언니, 오빠가 왼쪽으로 사망. 전쟁피해자연맹, 피해지 복원, 원호법 제정 요구 운동에 참가. 1982년 제2회 국제연합 군축 특별총회에 참석한 이후, 국내외에서 피폭 실상을 이야기함.

### 방공호 안에서

폭심지에서 800 미터 거리인 아부라기마치 방공호 안에서 피폭하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 학년으로 열 살이었습니다. 3 학년인 여동생과 1 년 6 개월짜리 조카와 경계경보나 공습경보가 발령될 때마다 집에서 500 미터 떨어진 아부라기마치의 방공호로 피난했습니다. 1945 년 8 월 1 일 공습부터 거의 매일 공습경보가 발령되어 대부분을 방공호 안에서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은 8 월 8 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사하야로 군무원으로 소집되어 있어서 아침 4 시에 기상해서 밤 10 시가 넘어서야 돌아오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 전원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렸지만, 웬지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일부러 꾸물꾸물하며 집안에서 놀고 있었지만, “오늘은 위험할 거 같으니까 어서 방공호로 가거라”라고 어머니의 다그치는 소리에 방공호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남아서 공습을 대비해 물을 길거나 덧문을 떼거나 했습니다. 나는 방공 모자를 쓰고 여느 때처럼 여동생과 조카를 데리고 방공호로 피난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알지도 못한 채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손을 흔들며 어머니와 헤어진 것이 아침 8 시경이었습니다.

방공호에 도착해 두건을 벗고 잠시 쉬고 있자 공습경보도 해제되어서 남자아이들은 소리치며 방공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는 여동생과 조카와 함께 방공호 안에 있었는데 그때가 11 시 2 분 경이었을 겁니다. 번쩍하고 빛난 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방공호 안에 있어서 열선은 피할 수 있었지만 번쩍하며 빛난 순간에 내 눈앞은 깜깜해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시간은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흔들어 깨워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본 것은 비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온몸에 박힌 사람이 방공호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누구인지 분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타서 문드러지고 알몸과 같이 옷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엄마! 엄마! 살려줘.”라는 소리에 저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지나도 가족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방공호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공호 안은 점점 냄새가 심해져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방공호

입구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영영하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여기에 있으면 죽는다. 밖으로 나가자!”라고 해서 나가보니 산더미 같은 시체와 방공호 안에 들어오지 못해 신음하면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피부가 문드러져 늘어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밟지 않도록 건넜습니다.

### **엄마와 언니의 죽음**

아버지는 엄마와 언니를 찾으러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 부근은 불바다였습니다. 엄마는 검게 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언니는 이상하게 얼굴은 전혀 안 탄 모습이었습니다. 언니의 시체를 발견한 이틀 후, 다시 엄마의 검게 탄 시체를 둘러싸고 울었습니다. 엄마와 언니의 시체는 불탄 자리에 타다남은 목재를 겹쳐서 태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을 태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 **두 오빠의 죽음**

큰 오빠는 특공대원으로 필리핀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무상자에 담겨 돌아온 것입니다. 작은 오빠는 의대생으로 상처 하나 없는데 입과 잇몸의 출혈과 설사 그리고 누런 것을 토해내고 4 일째 저녁에 죽었습니다. 왼쪽으로 죽고 또 전쟁터에서 죽고 우리에게 한꺼번에 육친을 빼앗아 간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전쟁만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 **1946 년 봄, 아버지와 세 명은 함께**

우리 어린 세 명은 따로따로 다른 집에서 키워져 1946 년 봄에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어와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를 모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위령제를 했습니다.

불탄 자리에 간신히 살 만한 정도의 집을 지어서 생활했습니다. 여덟 살이던 여동생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했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입니다. 피폭에 따른 백혈구 감소 탓이 아닌가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냄새에 시달렸습니다. 19 살의 짧은 일생을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피로워하던 끝에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언니로서 아무런 얘기도 들어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 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 **계승부로서**

나는 10 년 전부터 피폭체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폭유족회 회장이라서 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피로운 피폭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왼쪽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에 대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피폭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앞으로도 이야기를 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열 번 말하기보다도 열 사람이 각각 한마디 하는 편이 같은 열이라도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평화를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이 비참한 사건을 풍화시키지 않도록 21 세기를 녹색 지구와 평화로운 세대로 만들기 위해..

\* 본문 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숙부이지만, 나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셔서 쪽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입니다.

1988년